6강 영국과 이탈리아에서의 로마네스크

1교시 영국의 로마네스크

▲ 로마네스크 양식의 도입

영국은 좀 특이한 나란데, 좀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18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은 독자적인 건축을 갖지 못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18세기 때 낭만주의(romanticism)나 피테르스크 운동이나 빅토리안 고딕(Victorian Gothic),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미술 공예운동 계열, 즉 미술공예운동이나 중세주의 이 정도가 영국이 보통 한 기여예요. 20세기 후반부부터는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20세기 후반부 건축에서는. 중요하게 한나라를 꼽으라면 영국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전까지 영국은 대륙에서 먼저 만들어진 양식을 수입했어요. 이게 교재로 보면 3권 중반쯤 되는데, 영국이란 이름이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로마네스크 이전까지는 스톤헨지 말고 영국에 이렇다 할 건축 자체가 사실 없었고, 아니 건축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대륙의 표준 양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국이 대륙과 동일한 그 수준의 혹은 동일한 속도, 첨단성의 양식 사조를 첨 갖기 시작한 게 로마네스크라는 말이에요.

바이킹(Viking)의 남하와 함께 노르망디(Normandie)지방과 교류가 시작하면서 노르망디 지방의 당시 가장 발달해있던 로마네스크 건축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대륙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처음 받아들인 것은 참회왕 에드워드(Saint Edward the Confessor)와 정복왕 윌리엄(the Conqueror William I)이죠. 윌리엄이나 에드워드 등은 똑같은 이름의 왕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은 앞에 특기사항을 붙여요. 참회왕 에드워드가 받아들이고, 노르망디 공이었던 정복왕 윌리엄이 영국을 점령하고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로마네스크 양식이 영국에 들어가게 됐단 얘기죠.

대륙의 표준형, 즉 257페이지 위에 보면 3랑식 바실리카, 반원형 아치로 구성된 아케이드 등의 대륙의 표준형을 수입해서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나타났어요. 특히 노르망디 지방의 쥐미에쥬에 있는 노트르담 수도원 교회를 모델로 많이 삼았단 얘기고요. 이 시기가 1045-165년이에요. 1066년에 윌리엄이 노르만 정복을 해요. 106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의 로마네스크 건축이 시작됐단 얘기죠.

윌리엄은 노르망디 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노르망디 지방은 두 민족이 섞여 있어요. 앞에서 봤던 캉(Caen)의 생테티엔과 성삼위일체(Basilica of the Holy Trinity)를 지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이고, 이 사람이 영국을 점령하고 영국의 왕이 되면서, 캉에서 지었던 두 건물을 지었던 경력을 가지고 영국에도 로마네스크 건물을 짓는단 얘기죠. 윌리엄을 보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생베르땡의 고셀린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에 지어질 건물에 대한 지침을 정리했어요.

이전에 지어지던 영국의 전통적인 건축방식을 잊고 로마네스크 건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위엄 있고 경이롭고 극단적으로 길고, 확 트이고, 빛으로 가득 차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고 특별히 아름다워야 한다, 이게 지침내용이에요.

▲ 영국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

영국 로마네스크 건축의 큰 특징들이 나와요. 수도원 체제와 성당 체제로 이원화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영국중세 교회들은 수도원교회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수도원을 끼고 많이 발달했고요. 캔터베리(Canterbury Cathedral), 윈체스터(Winchester Cathedral), 우스터(Worcester Cathedral), 핫파스터는 좀 안들어본거고, 로체스터(Rochester), 더럼(Durham Cathedral), 이런 유명한 성당들이 전부 수도원 체제로 시작된 성당들이고요. 반면에 성당 체제로 시작된 교회들은 시체스터(Chichester), 엑서터(Exeter), 리치필드(Lichfield), 링컨(Lincoln), 솔즈베리(Salisbury), 웰스(Wells) 이런 유명한 교회들은 성당체제로 시작된 교회죠.

10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두 성당 체제로 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로마네스크의 기본 구성이 나타나요. 1. 이스트엔드에서 제형구성과 방사형, 복도형 이 두 가지가 많이 혼용되서 쓰이기 시작해요. 2. 전체적으로 수평 확장, 3. 원시적 무게감, 이 세 가지가 영국 로마네스크의 대표적 특징이었고요. 초창기 예들은 작은 예들은 좀 있는데, 가장 큰 규모로 대표적으로 처음 지어진 게 캔터베리죠, 켄터베리 성당.

364페이지가 평면이고요. 영국 중세건물들은 다른 프랑스나 독일과 다르게 로마네스크 때 지어진 게 고딕까지 이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딕 때 증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증축이 수평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선토막 치듯이 이 부분을 로마네스크 섹션(section), 이 부분은 고딕섹션 이렇게 된 건물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구분하는 게 쉬워요. 위에다가 리모델링하듯 증축한 건물들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고고학적으로 껍질 까보고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요.

영국은 로마네스크 때부터 고딕양식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영국 중세 성당이나 교회들은 뭐가 뒤에 설명이 많이 붙어요. 년도에 따른 설명이 굉장히 많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이브(nave)는 로마네스크 몇 년도고 슈베는 고딕 몇 년도고. 켄터베리도 지금 가보면 고딕골격이 많이 남아있어요. 로마네스크 때 평면을 추측 복원한 게 그림 364요. 제형, 슈베가 5베이(bay)의 제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손가락 다섯 개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게 이제 영국 로마네스크, 중세 성당의 이스트엔드의 전형적인 처리이기도 하고요. 네이브월과 트란셉트는 3단 표준 구성, 그 모습이 그림 365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링컨 성당(Lincoln Cathedral). 그 담에 베드로 바오로 수도원 교회고요. 링컨성당은 그림 367예요. 이게 정면모습인데요. 여기는 앵글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가로가. 여기도 보면 로마네스크 파사드(fasade)하고 고딕파사드가 섞여있어요, 지금 보면. 반원형이 대체적으로 로마네스크 창이고, 반원형 아치가 로마네스크 어휘고, 포인티드아치(Pointed Arch)가 고딕 어휘라고 보면 돼요.

367 평면 보면 링컨성당의 로마네스크 섹션 부분이 대부분 밑부분, 출입구 쪽이나 밑부분이 반원형이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포인티드 아치가 많이 쓰여요. 여기서는 네이브가 상당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히 많이 길어졌어요, 켄터베리와 비교해보면. 동쪽은 길어지고요. 이스트엔드도, 그렇죠. 수평, 동서 양방향으로 조금씩 잡아 당겨 길어지기 시작해요. 네이브의 이 수평성이 영국 로마네스크 건축의, 영국 중세 건축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얘기했구요.

나중에 고딕까지 다 지어질 경우에는 네이브가 14:1까지 되는 것들도 있고, 동서 양쪽으로 길어지면서 교회 전체 길이가 200미터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륙에서 수직경쟁이 벌어지는 것과 대비되서 영국에서는 길이 경쟁이 벌어졌단 얘기예요, 누가 누가 더 긴가.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누가누가 높이 올라가나로 경쟁을 하는데요. 그 담에 세인트 올번스 성당(St. Albans Cathedral), 세인트 올번스에서는 돌을 이용한 원시적 무게감이 나와요.

▲ 대륙과의 차이점 - 돌의 물성

돌의 물성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예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에서는 돌의 물성이 나중에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직 가능성을 농축적으로 꼭꼭 담아놓은 그런 식으로 돌을 다뤘어요. 독일에서는 추상적으로 다뤘던 데 반해서 영국에서는 원시적 무게감, 이 둘은 다 어떻게 보면 고딕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고딕과는 대별되는 특징이지만 나중 고딕과 같이 보게 되면 고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영국은 그대로 로마네스크의 범위내에 머무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세인트 올번스는 돌 쌓은 게 좀 특이해요. 여기 보면 371, 372 그림 이런 장면들이요. 평면은 앞에 봤던 캔터베리에 나타났던 그런 손가락 모양의 제형 구성이고요. 이런 게 원시적 무게감이 수평성과 같이 합쳐지면서, 영국의 낭만성 개념을 이루는 기본 가치, 미적 가치로 볼 수 있죠.

중세 때부터 영국은 낭만주의나 낭만성을 국민적 감성으로 갖죠. 나중가면 그리스 건축이나 18세기 가면 온갖종류의 리바이벌들이 막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스 건축이나 고딕건축을 해석하는 데도,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합리성 개념으로 푸는데 반해 영국은 계속 낭만성 개념으로 재해석해 내요. 합리성과 낭만성은 서양 문명이나 동서양을 통틀어 인간매개의 두 가지 대립되는 대표적인 쌍개념 중의 하나예요. 사람이 얘기할 때도 쟤는 합리적이야, 쟤는 낭만적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이게 유럽건축에서도 많이 쓰이죠.

세인트올번스에서는 로마 때 쓰이던 조적술인 회반죽 벽돌조적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건물은 로마 때 지었던 건물에서 재료를 떼어다가 하는데, 그런 경향은 서양에서 보편화된 것이었다고 얘기했고요. 로마 시대 때 보면 앞 건물에서 떼어다가 지은 건물도 많고, 콜로세움도 나중에 떼어다가 건물 지은 게 많아요. 기독교 시대 때 보면.

로마의 지중해적인 땅개념 이런 게, 같은 땅 개념이라도 프랑스나 독일에서 봤던 땅 개념은 고딕을 준비하는 수직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는데,영국은 그것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땅에 그대로 머문 경향으로 볼 수 있단 얘기죠.

그 담에 앵글로-노르만(Anglo-Norman)시대예요. 1080년대 오게 되면 기독교 건물이 수도원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되구요. 이게 1070년대 형성된 특징들이고요.(위에 말한 1,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 3), 1080년대 오게 되면 기하학성, 혹은 장식성이죠. 똑같이 기하를 쓰더라도 독일 같은 데선 이걸 상당히 추상적인 분위기로 많이 썼는데 영국에서는 장식적인 경향으로 쓰게 되는 게 1080년대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림 375,376, 267페이지 중간 봅시다. 네이브월에서 물성의 해체와 강화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경향, 해체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그림 375죠.

아치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대륙의 표준형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376은 기둥 같은 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지면서 벽면도 넓어지고 돌의 물성을 지키려는 건 영국적 경향인 거고요. 대륙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여기도 보면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시점이에요.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형성된 대륙의 표준양식, 국제주의 양식을 받아들여서 영국만의 그런 그 전통 정서를 거기다 더해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국 로마네스크 건축의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단 얘기고요. 그 장식성 문양성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예가 268페이지예요.

▲ 영국적 특징, 장식성

267페이지도 자세히 보고 그림 376을 보면, 1층의 아키볼트, 2층의 아키볼트가 보이죠. 2층의 아키볼트는 톱니 모양으로(톱니나 쥐 이빨이라고도 하는) 자글자글한 장식문양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구조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그야말로 장식성인데, 이런 게 영국의 전통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영국이 나중가면 이런 걸 바탕으로 공예 예술이 발달 하게 되죠. 이런 장식을 구조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낭빈데, 중세 때는 이런 장식 자체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져요. 때문에 중세 건축의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구조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론 비록 비효율적이더라도, 이것을 돌로 쪼개는 장인들의 건축 행위 자체가 하나의 구도행위였단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종교행위였단 얘기죠, 중세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륙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이런 기독교 전통이 19세기까지 영국은 강하게 지켜져요.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를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19세기까지 기독교가 꿋꿋이 남죠. 그래서 19세기 어려운 기계문명 시대에 정신적 등불이 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때 내건 기치가 이런 장식들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구도행위의 산물이라는 거죠. 때문에 장식을 부활시켜서, 사람들이 수준 높은 정신적 가치가 들어있는 수준 높은 조형 환경에 둘러싸여 살다보면 기독교적인 삶을 더 잘살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이상주의를 펴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장식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장면은 이걸로만 보면 안 되고 나중에 19세기 현상까지 같이 길게 봐야 돼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의미를 갖는 장면들이란 얘기고요.

▲ 리브의 사용의 영국적 특징

그 다음 리브(Rib) 문젠데, 1090~1120년 사이, 이때 오게 되면 리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272페이지로 먼저 가보면 위에 1093년에 더럼에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리브볼트가 처음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어요. 다시 270페이지 위로 와보면 리브볼트는 1100~1110년 사이에 노르망디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 두 주장이 상충되는 거예요.

1093년설은 영국 고고학자나 건축사학자가 주장하는 거고, 1100~1110 사이는 프랑스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먼저 썼느냐.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도 자꾸 생떼 쓰잖아요. 대륙 이쪽 유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미제사건들이 있어요. 이것도 미제사건 중 하난데, 고고학적으로는 대륙설이 많이 받아들여져요. 통상적으로는 1100~1100년 사이에 노르망디에서 먼저 시작되고 1110~1120년 사이에 영국으로 건너갔다고요. 대륙에서는 오히려 이 시기에서는 리브볼트 실험이 잠시 주춤했는데, 영국에서 받아들인 것을 잘 발전해서 나중에 1125년경부터 노르망디로 역수출했어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죠.

리브의 원래 목적은 구조적 효율성이죠. 자체가 내력기능을 가지고 볼트천장을 일정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얇아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네이브월과 외벽이 같이 따라서 얇아져요. 높이 올라가고 천측창을 높이 내고 여기서 파생된 구조적 이점들, 이게 리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영국 리브는 큰 문제가 뭐냐하면, 영국에서는 이런 구조적 목적보다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단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천장의 리브와 대응기둥 사이에 일정한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림 381,382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고요. 리브는 다발기둥, 대응기둥과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이게 구조 기능을 한다고 하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발기둥에서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요. 그게 정리되어 가는 게 고딕건축이 발전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고요. 로마네스크 때는 그게 완성되게는 안 나타났어도요. 예를 들면 그림 296하고 그림 381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리브와 대응기둥 사이에 일체성 문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296은 대응기둥하고 하나씩 잘 대응이 되고 있고, 381,382보면은 천장 리브들이, 천장에서 내려오다가 뚝 끊기거나, 이 아래쪽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리브의 구조적 역학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 대륙에서는 리브가 도입됨과 동시에 볼트가 경량화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단 얘기죠. 리브가 쓰인 건물들의 천장 두께가 리브가 안 쓰인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셋째, 2차대전 때 독일 폭격 받아서 건물들이 천장이나 이런 데 많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리브가 떨어져나갔는데도 볼트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경우가 있었단 거죠. 리브가 구조적역할을 했다면 리브가 떨어져 나가면 천장도 같이 내려앉아야 하는데, 천장은 리브 없이도 구조적으로는 할 수 있었단 얘기고요.

넷째, 성기로마네스크 절정에서 영국의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조평천장이 쓰이고 있었어요. 이런 등등의 증거들을 통해서 영국의 리브는 일단 연도 문제는 차치하고, 구조 부분은 상당히 발달하지 못했던 거죠. 대륙에서 구조적 목적으로 발명한 리브볼트를 장식적 목적으로 수입한 걸로 볼 수 있단 얘기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추가해서 더럼 성당(듀람 성당)에서 연도 논쟁이 아직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학자들은 1093년으로 주장하고 프랑스 학자들은 듀람의 성당은 1120년 이후에 대륙의 것을 모방해서 나중에 덧붙여졌다고 하고요. 어쨌든 더럼 성당은 영국 로마네스크 성당 중에서는 리브가 제일 처음 나타났고 깔끔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림 384예요.

연도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인데 대륙 쪽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요. 영국 로마네스크, 그러니까 더럼의 리브는 기하학적 장식에 가까운 것이죠. 앞에 얘기했던 장식성의 대표적 장면들이 더럼에 집약적으로 나타나요. 385,386, 387 이런 거 보면. 385 보면 아까 봤던 아키볼트의 톱니 문양의 장식이고, 클로셉에서 본 게 386, 387이죠. 387보면 스트라이프 아래쪽이 좀 보여요. 사선방향 스트라이프고, 386은 마름모꼴이죠. 다이아몬드 수직홈, 갈매기문양, 스트라이프 등등 기둥마다 장식 문양이 다 틀려요. 이런 기둥들이 쭉 나열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리브의 장식성을 잘 보여주는 현상으로 얘기가 되고요.

▲ 시토수도회 수도원 건물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영국 로마네스크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시토수도회(Cistercian) 소속 건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영국은 클뤼니 수도회는 거의 없었어요. 클뤼니는 상당히 프랑스적인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감정인 거 같고요. 그 전에 베네딕토 수도회는 많이 지어졌어요.

이후 로마네스크 시대 때는 시토수도회를 중심으로 로마네스크 건축이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1150년경까지 시토수도회 건물들은 1110년대부터 주로 요크셔(Yorkshire) 지방을 중심으로 지어져요. 1150년까지 다섯 개의 모델 수도원이 지어졌단 얘기고요. 대표적인 게 요크셔의 파운틴 수도원, 로체 수도원 이런 거고요. 앞에서 봤던 프랑스 퐁트네 수도원(Cistercian Abbey of Fontenay)을 이상적 모델로 삼아 지어졌어요. 1160년경에는 영국 전역에 51개의 시토수도원이 지어졌는데, 시토회 자체가 뿌리를 많이 내린 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예요. 절제를 강조한 시토수도원의 건축 방향이 기하문양, 유기문양, 피테레스크 등과 같이 장식 기재를 많이 사용하는 영국의 화려한 건축 전통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수도원 철폐령이 내리고 하면서 수도원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수도원 보면 폐허 모습이 많아요. 389부터 392까지. 파운틴스(Ruins of Fountains Abbey)가 비교적 원래 모습을 가장 잘 보존을 하고 있는 데도 왼쪽 위에 보면 교회 본당 보면 지금, 지붕이 없어 그죠. 지붕이 없고 벽까지만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고.

시토회 수도원에서는 4각형 성가대. 이게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요. 277페이지에 그림 393, 394 보면 끝이 그야말로 사각형으로 잘린 거야. 이거는 퐁트네 수도원 본당에서도 나왔던 장면이고요. 이스트엔드가 극기적인 상징성을 나타내는 단순화되는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379와 앞에 나왔던 370의 제형이나 방사형 이스트엔드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단적으로 드러나죠.

이런 게 시토수도회의 절제, 기본 정신인 절제와 정돈을 상징하는, 직선과 사각형이 반응된 결과가 영국 중세 성당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사각형 성가대석이. 사각형 성가대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을 쓴 대표적인 예들이 그림 393~395까지 나와 있구요. 부분적으로는 반원형도 섞여 쓰였는데, 그림 383 사우스회 같은 경우가 극단적으로 사각형만 쓴 경우예요. 278페이지 보면, 사각형 성가대석이 도입되면서 슈베의 전체 공간은 사각형 분위기가 주도하게 됐단 얘기가 나오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6강 영국과 이탈리아에서의 로마네스크

2교시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 이탈리아만의 로마적 전통

이탈리아는 로마적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에요. 이 로마네스크란 말 자체가 로마적, 종합화라는 의미가 맞는 사조 명칭 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대표하는 예가 이탈리아일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종합화라는 말을 잘 봐야 해요. 여기에는 중세 알프스 이북지역 서북유럽의 특징이 많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이탈리아 로마네스크는 이탈리아 전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서북 전통이 미약해요. 로마적인, 로마네스크적인 두 가지 큰 특징을 로마적, 종합화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로마적이라는 개념은 잘 보여주지만, 종합화라는 개념에서는 또 미약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는 보통 전통 로마네스크랑은 좀 벗어난 걸로 이야기가 되요. 이 때 문명의 중심이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조금 소외된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탈리아도 많은 로마네스크적인 건물이 지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네스크에서의 로마적 종합화는 그야말로 서북 개념이 약화된 다분히 로마 중심의 종합화죠.

로마 고전주의, 초기 기독교 건축, 비잔틴 건축, 이슬람 건축 등 우리가 보통 지중해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기에 속하는 양식 사조들을 많이 종합화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서부 유럽의 첨단 경향을 부분적으로 역 수입 하긴 해요. 하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보다는 상당히 미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건축은 세 가지 대표적 특징을 가져요. 로마 고전주의의 연속, 그건 앞에서 얘기 했었고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는 북부, 중부, 남부 이 지역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여요. 북부는 롬바르디아(Lombartia), 중부는 토스카나(Toscana), 남부는 시칠리아(Sicilia) 세 지역이 중심지가 되요. 크게 보면은 롬바르디아와 토스카나가 이탈리아 로마네스크를 대표하는 경향이구요.

특히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전통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대적 통일도시가 늦었죠. 독일보다도 오히려 늦은 거죠. 가디발디(Garibaldi)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근대적 통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도시 국가 전통이 강했던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20세기 2차 대전 이후의 현대 건축에서도 나라 내에서 지역주의적인 다양성을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이기도 해요.

알도 로시(Aldo Rossi)가 북쪽을 기반으로 해서 네오내셔널리즘(neo-nationalism)을 시작했다면, 로마에 있는 골수 고전주의자들은 그 경향이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드러난 게, 물론 그 이전 초기 기독교 건축도 보면 밀란 다르고 로마 다르고 거기서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이때 되면 롬바르디아와 토스카나가 완전히 다른 경향으로 정착하는 시기였다는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이탈리아 로마네스크의 발전

영국도 보면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초기 로마네스크와 성기 로마네스크 이런 스타일 양식 발전론(스타일 레볼루션) 개념의 구별이 무의미 했듯이 이탈리아에서도 초기, 중기, 후기의 구별이 무의미해요. 그 대신 지역별 특징으로 묶어서 보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란 얘기죠. 알프스 이북에 대해서 대체로 후진적인 것으로 간주되다가, 1939년에 티뮬러라는 건축 사학자 연구가 발표 되면서 이탈리아 로마네스크도 독립적인 미학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그래서 고전주의적인 연속성을 특징으로 갖죠.

거시적 차원에서는 로마다움과 로마적 종합화, 미시적 차원에서는 네이브월의 구조유기성을 이루는 구체적 어휘들인 아치, 오더(order), 볼트 등이 전부 로마건축에서 왔다는 얘기죠. 고전주의의 항시성. 심지어 중세 기독교의 출발점 까지도 고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고전주의니 고전 기독교 주의니 하는 이런 식의 말들, 보통 고전 클래시즘과 기독교 크리스찬너티, 또는 크리크찬 돔, 혹은 헬레니즘(Hellenism)과 헤브라이즘(Hebraism) 이게 대립되는 걸로 보이지만, 적어도 건축에서는 이 둘 사이의 상호 교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난 예가 이탈리아 로마네스크라는 얘기죠.

282페이지는 로마고전주의와의 연속성이란 의미에서 로마네스크 고전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로마고전주의는 항시성 때문에 항상 앞에 형용사가 붙는다고 했어요, 형용사가. 이 고전주의 앞에 붙는 형용사만 해도 수십 개 이상인데 크게 나누면, 우리가 예술사나 건축사 펴면 나오는 시대나 문명 별 양식사조 이름을 다 붙여도 되요.

초기 기독교 고전주의, 비잔틴 고전주의, 로마네스크 고전주의, 고딕 고전주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바로크 고전주의, 다른 말로 신고전주의죠. 현대 오게 되면 모던 클래시즘(고전주의), 컨텐프로리 클래시즘 등 수많은 이름이 붙죠. 이런 것들이 다 항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양에서 고전주의는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서 계승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앞에서 일정부분 봤었던 프랑스나 독일 로마네스크에서도 저런 경향들이 나타났었고, 이탈리아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건축의 시작은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하나는 초기 기독교 전통이 이탈리아 내부적으로 자생해서 이어지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발달한 표준형을 역수입한 경향으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에요.

전자의 예를 보여주는 게 그림 401 이런 것들이죠. 그림 400은 평면 같은걸 보면 거의 초기 기독교 바실리카에서 한 발짝도 발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림 401같은 경우도 롬바르디아 밴드라는 조적술을 이용한 장식 모습들인데, 이것과 아치를 섞어서 쓰는 게 롬바르디아 지방의 로마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란 얘기예요. 앞에서 제1로마네스크로 봤던 것처럼.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쓰던 제1로마네스크 기술들이 전부 로마시대 때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 다음, 알프스 이북의 새로운 기법을 받아들여 공유한 경향의 예들이 나와있구요, 피에몬테(Piemonte) 지방 등등.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탈리아 로마네스크는 강한 고전주의 전통을 배경삼아 알프스 이북의 동시대적 발전 상황을 받아들여 자국의 지역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베로나(Verona)에 있는 산 제모 이게 이런 이탈리아 로마네스크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에요. 그림 403 그게 이제 외관이고요.

동시대성은 외관의 추상적, 서술적 장식과 네이브월의 교대리듬으로 나타나요. 그림 405 보면은 주기둥과 부기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림 404 평면에서도 보면, 그 위에 두꺼운 기둥과 가는 기둥이 교대로 나타나요. 그게 독일이나 이런데서 정착되었던 교대리듬(alternating rhythm), 주기둥 부기둥 체계예요.

이를테면 원래 초기 기도교 건축에서는 주기둥 부기둥 개념이 없이 똑같은 기둥이 쭉 반복이 되었어요. 이런 주기둥 부기둥 내용은 알프스 이북지역에서 발전한 내용을 받아들인 걸로 볼수 있는데,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주기둥 부기둥을 쓴 이유가 구조적인 목적이에요, 리브와 일체화 되면서. 그런데 405장면에서 보면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쭉 봤었던 주기둥 부기둥 체계.

예를 들면 그림 335 제2슈파이어 이런것과 비교해 보면, 전혀 구조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둥의 모습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네이브월 보면 1단, 2단 구성 뿐만 아니라 천측창도 굉장히 좁아요. 주기둥을 두껍게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런 네이브월 장면은 초기 기독교 장면으로 볼수 있고, 기둥만 놓고 보면 알프스 이북지역에서 발명한 최신 구조방식을 도입한걸로 볼수 있어요.

굉장히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이탈리아 로마네스크의 특징이에요. 이걸 일반화 시켜 보면 앞 시대의 첨단 장식을 이끌던 나라가 갑자기 뒤처지면서 다른지역에서 발명한 첨단양식을 역수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재현상으로 볼수 있죠. 이게 특히 유럽같은 여러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나라들에서는 예술도 첨단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보통 예술을 창조성에 의해 새로운 양식의 창출을 최대의 미덕으로 보는 개념이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나라들 사이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천재 개념, 즉 미칼란젤로니 베로니 하니 천재들이 추앙받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농축적으로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페트론(patron)들도 항상 그런 사람들로 후원하고. 그 사람들이 스쿨을 이루게 되는데, 예술이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장면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 할수 있어요. 로마네스크에 집중시켜 보면 발달한 서북유럽의 내용을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납골당 같은 경우는 로마 전통이 강하게 지켜져요. 그래서 로마적 원형성 이런 게 납골당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 건축적 기법 자체가 초기 기독교시대의 원형적 기법이죠. 납골당에 별도로 봉언된 성인이 없는 점들이 다 고대 기독교의 현상들이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장식이 더해지지 않고 공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식으로 초대 교회의 건축적 원형성이 그대로 지켜진 내용들이에요. 반면에 일층 네이브월에 나타난 것은 기독교가 분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두 가지 큰 특징들이 혼재하는 건물이에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중 최초로 많이 완성된 상태로 나타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전통과 새로운 발견이 충돌하면서 혼재하게 되는 고민들이 나타난 예이죠.

▲ 롬바르디아 지방의 건축적 특징

롬바르디아 지방을 보면 여기 중심지는 밀라노(Milano), 파비아(Pavia), 파르마(Parma), 모데나(Modena) 이런 도시들이죠. 다 중요한 중세도시들인데, 이탈리아 고전 기독교의 전통을 기본바탕으로 롬바르디아 제1로마네스크, 알프스 이북 초기 로마네스크, 지역의 전통장식, 특히 벽돌조적술 이런 요소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밀라노에 있는 산 암보르시오(Saint Hambrogio), 이게 대표적인데 이건 관광지로도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그림 409, 410이죠. 동시대성과 전통과 로마적 전통의 혼재되어 있죠. 동시대 성은 모듈구성이라던가 이스트엔드의 발전 등이 평면에서 쉽게 파악이 되요, 그림 414를 보면. 그 다음에 네이브월을 보면 이 기둥과 네이브월 사이에 대응관계죠. 그림 411~413까지. 그림 412 보면 리브도 썼고요. 이 리브가 구체적인 구조작용을 얼마나 하는지는 얼마나 하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리브가 대응기둥 대응기둥에 어쨌든 접목이 되고 있어요.

횡방향, 사선방향, 종방향, 이런 아치들하고 완전히 일치는 안해도 비교적 많이 일치가 되죠. 그래서 성제노와 비교해 봐서는 상당히 발전한, 정리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로마적 전통은 특히 조적(벽돌)인데, 그래서 밀라노는 초기부터 조적술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였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롬바르디아 밴드를 잘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구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평면을 보면 평면은 바실리카 평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라틴크로스(LatinCross)까지 발전을 못한 게 로마적 전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바실리카 출입구형이 따로 있는데, 더욱 로마적 전통을 보여주는 것은 그림 410보면 여기서는 바실리카 출입구가 아니라 개선아치 모티브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적 전통에 강하게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14 평면에서 중간쯤 보면 양옆으로 사각형 공간들이 조금 튀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물 실내는 오른쪽부터 시작되는 거고, 왼쪽은 아트리움(atrium, 중앙홀)이에요. 실내가 아니고 옥외중정. 이 아트리움을 갖는 구성도 초대교회 때 바실리카에서 쓰던 평면구성이란 얘기죠. 밀라노가 특히 초기 기독교 건축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심지였고, 414의 평면과 같은 선례를 갖는 초기 기독교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산 암브로지오라는 사람이 밀라노 기독교 정착에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한 초기 기독교 때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기념해서 봉헌한 건물이죠.

이 여러 가지를 봤을때 이 밀라노 지방에 정착되어 있던 초기 기독교 건축을 로마네스크적으로 확장한 이런 예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은 이탈리아식 로마적 종합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 다음에 그림 416 파비아에 성 미카엘 보면, 파사드가 신장 파사드에요, 바실리카 파사드가 아니라. 신장 파사드의 로마식 아치를 많이 섞어 쓰고, 그림 417처럼 지역장식을 이용한 직설적 상징주의를 섞어 쓴 게 로마적 종합화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구요, 이런 롬바르디아에 장식경향은.

로마네스크 시대에 오게 되면서 당시 베네치아에서 서북유럽에 이르는 교역벨트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요. 로마네스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명이고 농업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업발전은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상업발전을 이룬 게 베네치아에서 서북유럽으로 이르는 교역벨트가 있는 중간에 걸쳐가는 롬바르디아 지방이었다는 얘기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알프스 산맥이 있고 베네치아에서 롬바르디아 지방 걸쳐서 중간에 알프스 산맥이 비교적 낮은 지역이 몇 개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서북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은 밀라노 쪽에서 넘어가는 게 있고 베로나 지역에서 넘어가는 게 있고, 토리노(Torino)에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밀라노, 토리노, 베로나 지역이 큰 이유가 다 서북유럽의 큰 문명권하고 교역이죠. 파리에서 밀라노 가는 고속도로 죽 타고 내려가 프랑스남부로 오게 되면 표지판이 갑자기 밀라노로 바뀌어요, 프랑스 도시들만 나오다가. 프랑스 국경에서 밀라노까지 200㎞ 밖에 안 돼요. 한 시간에도 가죠.

롬바르디아 지방이 이 베네치아에서 서북유럽으로 가는 교역벨트가 넘어가는 중간과정이란 얘기예요. 서북유럽에서 베네치아와 교역을 통해서 융성했던 도시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힐데스아이 이런 도시예요. 이게다 로마네스크 중심도시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번 새로운 계층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는 성직자, 왕실귀족, 기사, 해서 계층분화가 많이 안 일어나던 때인데 계층상으로는 평민인데 교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번 경제력으로 무장한 평민계층들이 세력을 형성해요.

▲ 토속성과 장식성의 반영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예술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전에 성직자나 귀족이 누렸던 예술을 자기들도 향유를 하고 싶어 한단 얘기예요. 그 예술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공예품이나, 일상 식기, 일상 잡기들로 시작해서 교회에 돈을 기부해서 교회를 짓게 되면 교회에 새겨지는 장식들을 자신들의 예술 양식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291페이지 중간 쯤 보면, 새롭게 등장한 세력의 건축은 주로 장식어휘를 통해서 표현되었어요.

파사드를 비롯해서 건물의 여러 곳에 장식어휘들이 새겨 졌어요. 청동대문, 오더주두, 네이브월, 바닥, 천장 등 장식이 들어갈 여백이 있는 곳이면 모두 장식으로 채워졌단 얘기에요 그림 424같은 게 대표적인 예고요. 이전에 쓰이던 성화 중심의 기독교 장식은 계속 썼고, 거기에 더해서 교역벨트에 있는 일부 건물에서 상당히 자연주의적인 장식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림 424는 기독교적 교회건물인데 농촌을 배경으로 갖게 되요. 기독교적 상징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꽃, 식물 문양이 등장하게 돼요. 그것은 교역을 통해 돈을 번 평민들이 교회에 기부해서 장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걸로 새긴 그림 426 대표적인 예구요. 기독교 장식에 대별되는 상징성을 가졌다는 거죠. 롬바르디아 지방에 특히 이런 건물들이 많았고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평민지역주의'라고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설명들이 주욱 292~293에 걸쳐 나와 있구요.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베로나의 성 제노예요, 앞에 나왔던 건물. 앞에서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가 처음 시작될 때 전통과 서북유럽의 첨단양식이 혼재하는 고민을 본거고요. 이 장에서는 같은 건물인데, 장식을 보게 되면 내용은 다양했는데 일부는 기독교에 관한거였지만 표현경향이 정통기독교와 달리 서술적으로 바뀌어있었죠, 293페이지 위에. 동고트족(Ostrogoths)의 왕이나 카롤링거(Carolingian)의 신화, 사화 같은 토속적 주제를 쓴 것도 그렇단 거구요. 평민장식주의 얘기들이 쭉 나와요.

모데나 성당(Cathedral, Torre Civica and Piazza Grande, Modena)은 상당히 중요한 건물들이에요, 로마네스크에서. 예를 더 들어서 그림 420, 435보면 모데나 성당의 실내 같은 것, 그림 433 같이 대출입문(포털)로 들어가는 아키볼트의 이런 띠 문양 장식들이 쓰이고 그래요. 이런 게 평민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죠. 아키볼트의 원래 전통인 전통기독교적 성당은 성인들의 모습이나 성경의 내용 기독교적 내용을 붙이는데, 이 건물은 상당히 세속적인 장식을 썼다는 거예요, 꽃문양일수도 있고. 이런 게 평민장식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 토스카나 지방의 건축적 특징

토스카나는 한마디로 장식 고전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토스카나 지방은 원래 로마시대부터 유명한 대리석 산지에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색과 문양을 자랑하는 대리석들이 많이 출토되죠. 로마시대부터 이 대리석을 이용한 채색장식주의 채색주의, 폴리크롬이라고 부르는 전통들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 이게 로마네스크까지도 이어져요.

296페이지 위에 재료에 대한 입장 보면은 롬바르디아의 벽돌유적과는 다른 대리석 조적, 아치를 이용한 아케이드가 주류죠, 대리석의 색과 무늬를 이용한 기하문양장식과 채색주의. 그림 491은 비잔틴의 모자이크를 대리석을 이용해서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비잔틴과의 연관성이 로마적 종합화의 한 내용일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잔틴 까지는 로마 지중해 기독교 한 분파로 보기 때문에, 그 진행적인 모습들이 쭉 나와 있구요. 그림 440 롬바르티아 지방의 산제노와 토스카나의 그림 439 파도바(Padova) 성당을 비교해 보면 두 지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439는 찍어 바르고 난리를 친 거고, 440은 요즘말로 하면은 생얼이고요. 444 토스카나 이런데 보면, 건물인지 얼룩말을 보는 건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제브라(zebra) 문양이라고 해요. 그런 예들이 나와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피렌체예요. 그림 448 산미니아토(San Miniato) 알몬테는 돌로 그림을 그렸어요, 한마디로. 이게 다 페인팅 한 게 아니라 청대리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과 백대리석을 이용해 기아 무늬를 그린거구요. 피렌체 인근 도시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304페이지 피살루카 피스토리아 플라토 이런 도시들이 대리석을 이용한 토스카나 채색장식주의 보고들이죠. 피사성당(Duomo di Pisa), 피사사탑(Leaning Tower of Pisa)이 이런 경향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이때는 피사와 피렌체가 경쟁이 심하던 시기예요. 지금은 피사가 작아서 피란체와 비교가 안될 거 같은데요. 피렌체는 르네상스(Renaissance)를 거치면서 커진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엔 비등비등 했다구요. 거리도 100㎞도 안 되고요. 지금은 거의 피사가 피렌체의 외항처럼 되어 있죠,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옛날에는 두 개의 다른 도시국가였다는 거지요.

피사는 나름대로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나폴리 이런 게 이태리의 큰 항구 도시들인데 옛날엔 피사도 한 가닥 했다는 얘기죠. 피사 해군이 이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1603년에 세워진 게 피사성당이에요. 그때 사탑과 같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 전경이 그림 456에 나와 있구요.

피사사탑을 포함함 세례당 성당 사탑, 이때는 피란체와 전쟁도 많이 했어요, 두 도시가. 그 와중에 주변 루카(Lucca), 피스토이아(Pistoia), 프라토(Prato) 이런 도시들은 피사에 붙었다 피렌체에 붙었다했죠. 이기는 쪽에 조공 바치는 구도가 있었어요.

피렌체와 피사가 아웅다웅 경쟁을 하면서 이런 장식주의 건물들도 누가 더 화려하게 짓나 하는 경쟁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림 45,8 450, 460 보면, 피사 건물들의 채색은 비교적 화려한 장식이나 채색을 덜 썼는데, 아치들이 자잘하게 쪼개지죠.

예를 들어 그림 449 보면 아주 플랫해요, 면이. 구조체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이차원면이죠. 캔버스에 그림 그린 것 같고요. 그림 458은, 이게 구조 역활은 안하지만 3차원적으로 음영이 들어가는 이치의 스크린이 쭉 여러 층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피렌체와 피사의 차이도 일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사사탑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